꽃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의 산'

백두대간 속으로 (2)

지리산 ①

둥 둥 둥, 하늘에 떠 있는 섬 하나. 천왕봉! 하늘을 비집고 선 것도 아니고 하늘이 그만큼 물러나 있지도 않았다. 마치 깍지 낀 손가락처럼, 하늘과 땅은 그렇게 한몸을 이루고 있었다. 처라리 떠 다니는 물알갱이라 해야 옳을 짙은 안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없애고 있었고, 나와 대상을 눈과 눈꺼풀의 관계로 만들고 있었다. 지리산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시간과 공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일러 준다. 하늘과 땅도, 시작과 끝도 본래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순간순간이 창조의 시간이자 소멸의 시간이며, '나'와 '그것'이 꽃잎과 꽃잎에 매달린 이슬의 관계임을 일깨워 준다.

넓이 1억3천만평 둘레 800여리
옛사람들 문수보살 주석처로 믿어

화엄·칠불·쌍계사등 곳곳에 명찰

이슬방울이 떨어진다. 충일한 한 존재의 장엄한 낙하. 다시 뿌리로 돌아간 그것은 또다시 꽃을 피워 올린다.

이슬이 곧 꽃잎이고 꽃잎이 곧 이슬이다.

꽃잎이 떨어진다. 생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모습이다. 그것은 다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된다. 비로소 세상은 커다란 한 송이 꽃이 된다.

산에서는 이슬방울 하나도 위대하다. 그것이 곧 우주인 까닭이다. 그래서 산은 위대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백두산이 이 땅의 뿌리라면 지리산은 이 땅의 꽃이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꽃이다. 넓이 440.485㎢(1억 3.348만 평)의 광대한 자락을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의 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걸쳐 놓고 있으며 그 둘레가 자그마치 800여 리나 된다.

높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최고봉인 천왕봉(1,915m)은 섬을 제외한 남한 땅의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을 잇는 100리에 가까운 등마루에만도 1,000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20여 개나 된다. 또 그만큼의 등성이를 가지치며 피아골이나 내원골 같은 계곡을 만들어 섬진강과 낙동강을 살찌운다.

지리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밟는 일은, 꽃이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어찌 감히 면벽한 선승(禪僧)의 향상일로(向上一路)에 비길까만, 고맙게도 지리산은 그것을 허락한다. 대간의 남쪽 들머리가 천왕봉(天王峯)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찰로 치면 사천왕문(四天王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천왕봉이다. 해탈문이 멀지 않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저기 제석봉, 연하봉, 영신봉, 덕평봉, 명선봉을 지나 지리산의 심장이라 할 '지혜의 봉우리(반야봉)'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간다.

지리산은 깨달음의 산이다. 일찍이 옛사람들도 이 산을 불국토로 여겼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 보살이 머물면서 불법(佛法)을 지키고 중생을 깨우치는 도량으로 믿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산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문수사리(文殊師利)의 '리(利)'를 딴 지리산(地利山)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지리산의 서쪽 기둥격인 노고단(老姑壇)은 신라 때에는 '갈상(卍)봉'으로 일컬어졌으며,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30개가 넘는 사찰이 골마다 들어차 있었다.

지금도 지리산 자락 그윽한 곳에는 목탁 소리와 염불 소리가 끊이질 않고, 눈 푸른 납자들의 기상은 산빛을 더욱 시리게 하고 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화엄사를 비롯하여 10여 개가 넘는 고찰이 깨달음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그 면면을 살펴보자.

화엄종찰인 화엄사는 754년에 연기 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신라 말기에 도선 국사가 다시 크게 일으킨 사찰이다. 국보 제67호인 각황전과 그 앞에 우뚝 선 국보 제12호인 석등은, 국보 제35호인 사사자 삼층 석탑과 함께 한국 불교의 큰 자랑거리이다. 또한 6·25 때 각황전을 향해 날아가던 총알이 지붕 위로 비껴갔다는 거짓말 같은 얘기는, 화엄사의 부처님이 이 일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대상인가 하는 점을 잘 말해 준다.

역시 연기 조사가 543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연곡사도 빼 놓을 수 없는 절이다.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부도(동부도 국보 제53호, 북부도 국보 제54호)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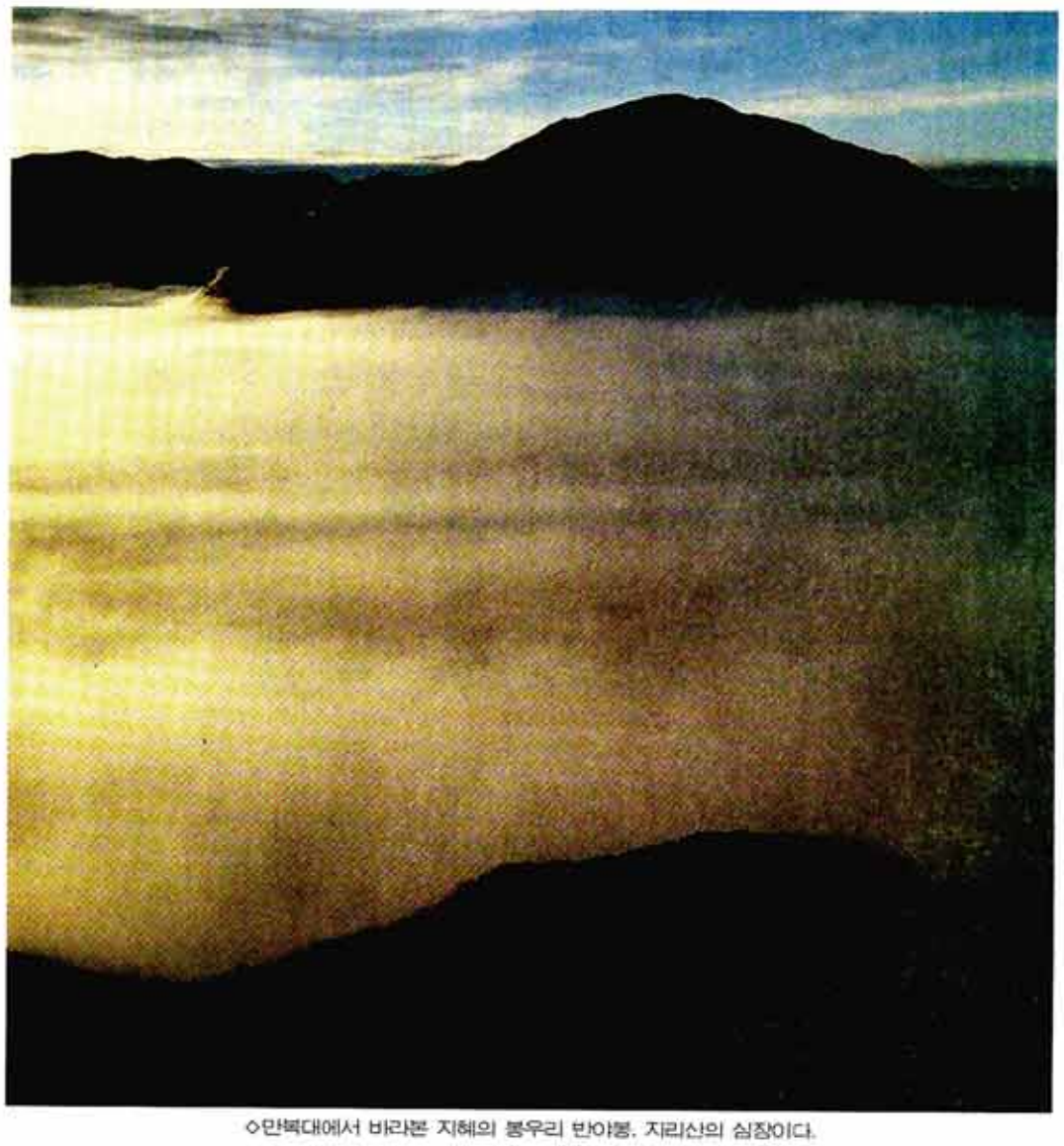
덕운 조사가 828년에 창건했으며, 도량 앞을 흐르는 계곡물을 비롯한 주변의 환경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룬 천은사도 그냥 지나치기 아깝다.

아(亞)자방으로 유명한 칠불사, 고운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가 1,000년 고찰임을 일러 주는 쌍계사, 선문구산의 하나인 실상사 등도 지리산이 얼마나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은 산인가를 새삼 일깨워 준다. 그 밖에도 지리산에는 금대암, 대원사, 벽송사, 안국사, 영원사와 같은 사찰들이 산문을 활짝 열고 있다.

대간 종주의 시작(99년 6월 1일)은 비에 젖는 일이었다. 비를 담은 물주머니, 손으로 움켜쥐면 주루루 물이 흐를 것 같은 구름과 어깨동무하며 젖고 또 젖었다. 땀도 참 많이 흘렸다. 다행히도 빗물과 땀은 서로를 배반하지 않았다. 덕분에, 빗물과 함께 온전히 지리산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참으로 장엄한 입문식이었다.

꿈꾸어 본다. 이 길이 끝나는 날, 들꽃에 내려앉은 이슬 방울과 똑같은 질량으로 풀잎 끝에 올라설 수 있기를. 솔잎 끝에 매달릴 수 있기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

글=윤제학(본사 여시아문 출판부장)
사진=손재식(사진가)



◇만복대에서 바라본 지혜의 봉우리 반야봉. 지리산의 심장이다.

◇종석대에서 바라본 왕시리봉을 비롯한 지리산 남쪽의 줄기들.

지리산 10경

1. 천왕일출(天王日出):"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왕봉의 일출은 빼어나다.
2. 직전단풍(稷田丹楓):피아골의 단풍을 이른다.
3. 노고운해(老姑雲海):지리산의 운해는 노고단에서 바라보아야 제격인 모양이다.
4. 반야낙조(般若落照):지혜의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낙조, 빛과 어둠이 둘 아님을 가르치려 함인가?
5. 벽소명월(碧宵明月):푸른 고갯마루를 비추는 밝은 달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까.
6. 세석(細石) 철쭉:연분홍으로 고운 잔돌평원의 철쭉은 그대로 꽃구름이다.
7. 불일현폭(佛日懸瀑):장군폭비 한 방, 불일 폭포의 말 없는 가르침이다.
8. 연하선경(烟霞仙境):연하봉 아래의 숲속을 거닐면 누구라도 신선이 되고 만다.
9. 칠선계곡(七仙溪谷):천왕봉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며 선경을 이룬다.
10. 섬진청류(蟾津淸流):지리산 푸른 그림자를 안고 흐르는 섬진강 또한 늘 푸르다.

지리산 10경은 70년대 초 구례의 지리산악회에서 뽑은 것인데, 지리산을 이해하는 데 참고로 삼을 만하다. 하지만, 곁에 절경을 두고도 10경이라는 이름에 넋이 팔려 그냥 지나치는 어리석은 짓을 할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 선정 상품 특선

참선명상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앉았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의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건강한방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여러 보약도 들고 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스럽거나 피곤한 분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 좋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피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안성투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싸이버 성덕대왕 신종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싸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종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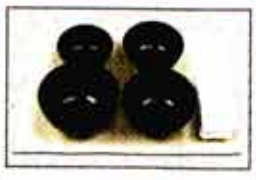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C 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채작 종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은은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싸이버 에밀레종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30㎝
좌대크기 15㎝×15㎝
종 5㎝×11㎝
가격: 143,000

■ 싸이버 에밀레종(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동
규격: 종 17㎝×12㎝
가격: 200,000

■ 싸이버 에밀레종(나무사리)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26㎝
종 5㎝×11㎝
가격: 143,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 그릇 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니어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빨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일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법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器)이다

• 외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 외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1 Kg
(사찰은 제가 불자를위한 발우 입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에서 오직 중 이나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위하게 만들어 봅니다 특히 차나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나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시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법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스탠세

• 크기 가로720×세로340 ×높이320(단위:mm)
• 재질 느릅나무
• 가격 ₩8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VIDEO 테잎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천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상덕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청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비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중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액자에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상용신안등록 No 24266 호

•가격:₩120,000

MahaMall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